

“여수만 르네상스 프로젝트 속도감·완성도 높이자”

여수시 부시장 20여명 참석 세부 실행계획 점검 보고회 여자만 둘레길·광양만 수소도시 등 56개 실행과제 확정

“여수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속도감과 완성도를 높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를 앞당기겠다.” 여수시가 민선 8기 최대 공약인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개발계획’의 진척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해당 국·소·단장 등 부서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 발전 본격 추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현재 진행 중인 여수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각 만별 실행과제에 대한 부서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보완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

련됐다. 정 시장 주재로 총괄 보고와 세부실행계획 보고,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여수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재확인했으며, 56개 주요 대표 실행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 실행과제는 ▲여자만 둘레길(고흥-보성-순천-여수) 조성,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장수만 섬 관광특구 지정, 친환경 섬 이동체계 구축 ▲가막만 마리나 R&D센터 건립, 복합해양레저관광 도시 육성 ▲여수해안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위케이션 활성화 체계구축 ▲광양만 수소도시 조성, 석유화학산업 신산업 전환 등이다.

앞서 시는 여수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실현 가

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종 영역에서 제시된 61개 사업과제에 대해 한 달여간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56개 실행과제 확정과 함께 해당되는 20개 추진부서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사도·주도·남도 등 장수만 일대의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화양면 안포리 일원의 뷰디스파 웰니스센터 건립 등 일부 과제는 이미 실행에 돌입했다.

이날 정기명 여수시장은 “앞으로도 분기별 성과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시민에게 진행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남해안 거점도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와 관련 공무원 벤치마킹 원정대와 시책 연구 모임 연계를 통해 국내외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해 지속적으로 신규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가 지난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 발전 세부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곡성군 내년까지 ‘곡성유학’ 거주시설 18동 추가 건립

옥과 등 3개 권역 유학마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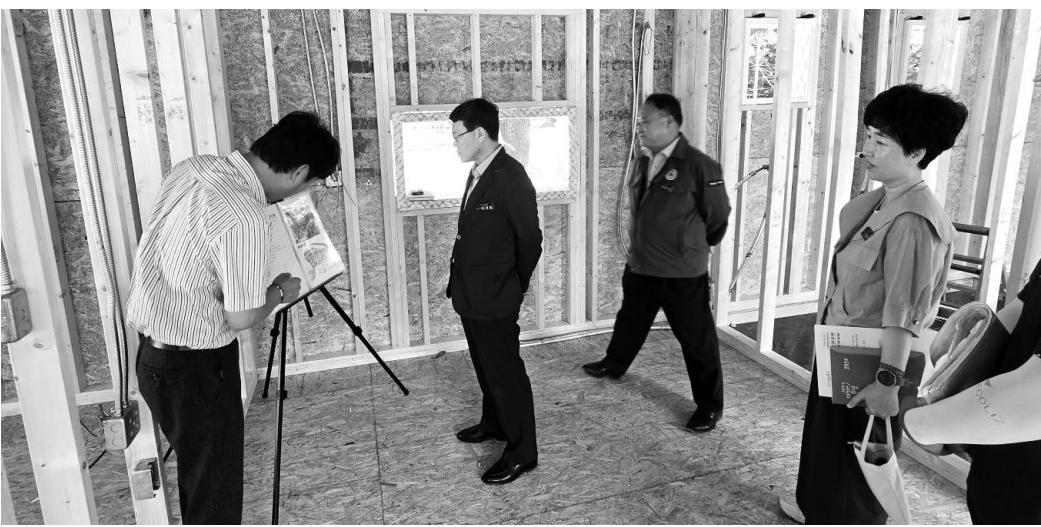
곡성군이 농촌유학 프로그램 ‘곡성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거주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곡성군이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곡성유학’은 도시 학생들을 농촌으로 유치해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 사업으로, 지난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곡성군과 교육지원청·학교가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옥과권역(오산면) 등 3개 권역에서 운영 중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오산면에 유학생과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도담도담 유학마을’을 조성했다. 이곳에 현재 18가구 51명이 거주하면서 곡성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군은 내년까지 석곡권역 등 권역별로 총 18동의 참여자 거주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 29일에는 이귀동 군수 권한대행과 인구정책과장, 죽곡면장 등 관계자가 죽곡면 삼태리의 곡성유학 프로그램 참여자 거주시설 조성현장 방문해 추



지난 29일 이귀동(왼쪽 두번째) 곡성군수 권한대행이 죽곡면 삼태리의 곡성유학 프로그램 참여자 거주 시설 조성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진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귀동 곡성군수 권한대행은 “곡성유학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학생과 가족들이 곡성으로 들어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곡성유학을 통해 폐교 위기의 작은학교를 살리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여수시 ‘찾아가는 내(노)사랑 치매센터’ 호응

올해 610개소 8300여명 검진

여수시가 치매 조기 발견 및 중증치매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내(노)사랑 치매안심센터’가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내(노)사랑 치매안심센터’는 거동이 불편해 센터 방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마을회관·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해 검진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위해 여수시 보건사업과 치매지원팀은 3개 검진팀을 구성, 1주일에 3회 이상 출장 검진에 나섰다. 검진팀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총 610개소를 방문해 총 8,922명을 검진했다. 이중 39명이 치매로 확진돼 등록하게 됐다.

검진팀의 1차 치매선별검사(CIST) 결과에서 인지저하자로 나타난 대상자는 2차 진단검사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3차 감별검사 대상자는 협약병원 3개소(여수전남병원, 여천전남병원, 여수제일병원) 중 한 곳과 연계해 혈액검사와 뇌영상 촬영 등을 받게 된다. 시는 3차 검사 때 1인당 8만 원 한도 내에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매로 확진된 대상자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실종 예방(자문등록, 배회감지기 지급 등) ▲치매치료관리비 ▲조호물품(거저귀 등) ▲사례관리 ▲인지강화 프로그램 ▲치매환자 가족 돌봄 등을 받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하면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늦출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본인과 가족에게 심한 고통이 된다”며 치매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치매안심센터(061-659-544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한여름밤 낭만 선사하고...광양시 산사음악회 성료

봉강면 비봉복지센터서 열려 500여명 다채로운 행사 즐겨

광양시의 ‘제11회 산사음악회’가 지난달 31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봉강 백운재 별밤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봉강면 비봉복지센터에서 열린 ‘산사음악회’는 바쁜 일상에 지친 주민들의 마음을 음악의 아름다운 선율로 보듬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제1회 ‘성불사의 밤’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봉강면의 축제이다.

봉강면 청년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주민들과 관람객 등 약 500여 명이 참여해 한여름 밤의 낭만을 만끽했다.

생활문화 동아리 10팀의 감동공연과 비봉풍물단의 사물놀이 공연은 축제의 흥을 돋웠으며 광양시립국악단의 국악 공연, 봉강면 주민의 춤바덴스, 기타, 난타 공연, 축하 가수의 공연 등이 관



지난달 31일 봉강면 비봉복지센터에서 열린 ‘제11회 산사음악회’의 난타공연 모습.

람객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한편 식이 진행되는 행사장 주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벌인 ‘늘푸른 청정봉강지킴이단’의 활동과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발전기금 500만 원을 기탁한 봉강면 청년회 역대 회장단의 통 큰 행보는 축제의 의미를 한껏 더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곡성토란 추석 맞아 본격 출하 토란쿠기 등 가공제품도 출시

‘전국 최대의 토란 생산지’ 곡성군이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토란을 본격적으로 출하하고 있다. <사진>

곡성군 농가는 토란이 제철인 가을철에 소비가 집중되고, 특히 추석 차례상에 토란국을 올리는 전통으로 인해 이 시기에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출하량을 늘리고 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전통 식재료로 이용되어 온 토란은 최근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가을철 토란탕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곡성군은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해 간토란, 토란국, 토란쿠기 등 다양한 가공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곡성은 양질의 재배환경과 오랜 기간 축적된 재배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토란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생산 여건을 토대로 곡성은



전국 최대의 토란 생산지로 자리 잡아, 현재 전국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토란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토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최근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토란 가공상품 개발과 마케팅 지원

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군은 2023년부터 토란 유통사업을 통해 토란유통센터 구축과 체험관광 인프라 조성, 브랜드 강화 등을 추진중이며 아울러 토란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떡류, 밀키트 등 다양한 가공품과 레시피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고흥군이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왼쪽부터 우수항공추진단 오대현 주무관, 재무과 김요한 주무관, 점암면 신은호 주무관, 공영민 고흥군수, 주민복지과 박미나 주무관, 건설과 주영재 주무관. <고흥군 제공>

고흥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 선정

류상훈 팀장·오대현 주무관 최우수

고흥군이 최근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정의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 7명을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여타 면제 추진에 기여한 우주항공추진단 류상훈 팀장, 오대현 주무관이 선정됐다.

여타 면제는 지난 3월 국토부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한 15개 산단 중 지방권에서는 최초로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산단 조성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약 1년 이상 단축됐다.

2025년에는 산단 계획 승인과 인허가를 완료한 후, 2026년부터는 국가산단 조성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수공무원으로는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한 재무과

김요한 주무관과 ▲경로당의 지출 보충료를 절감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며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 점암면 신은호 주무관이 선정됐다.

또 장려 공무원으로는 ▲나눔연수원 예산 확보와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의 정부포상 지원을 통해 상의 훈격과 가치 향상에 기여한 주민복지과 박미나 주무관 ▲남양 우도 인도교 설치로 통해 도서 지역의 숙원을 해결한 건설과 주영재 주무관 ▲나로도 어판장 병목구간 해소에 기여한 봉래면 공무원 주무관 등이 선정됐다.

군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근영 가점과 포상 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 우수사례를 전 직원에게 공유하여 군민 중심의 적극행정 실천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이번 우수사례를 전국에 홍보하여 행정혁신을 주도할 방침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순천시, 다음달까지 ‘가치소비 체험단’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SNS 홍보

순천시가 9월부터 10월까지 우리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체험하고 SNS를 통해 제품 홍보를 하는 ‘가치소비 체험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가치소비 체험단’은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가치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또 체험단은 순천시민 10명 내외로 구성되고,

사회적 가치소비의 개념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 블로그와 SNS를 운영하고 친구 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체험단에 2회에 걸쳐 8종류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참가자는 1차 상품 패키지를 사용한 후 후기를 온라인으로 홍보하면, 2차 상품 패키지를 수령하게 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